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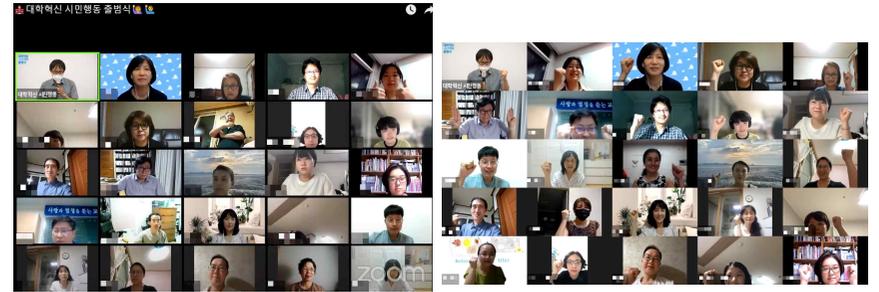
■ <대학혁신 시민행동> 출범식 현장스케치 (2021.6.30.)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4일(목) 오후7시30분에 <대학혁신 시민행동>의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출범식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줌(ZOOM) 프로그램과 유튜브 생중계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출범식에는 50여 명의 줌 참여와 30여 명의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출범식 줌 화면>

■ 홍민정 공동대표의 인사말,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

인사말에서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다수를 패배자로 만드는 대학서열과 이를 위해 설계된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첫 번째 축사를 맡은 김누리 교수는 대학 서열, 대학 입학시험, 대학 등록금 없애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축사에서 박주민 국회의원은 대학이 가진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만 우리사회가 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한 시민의 목소리

입시 중심 교육의 변화, 대학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 학생, 학부모, 교사가 바라보는 교육의 현실, 대학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 상영했습니다.

대학서열화를 혁파하지 않는 한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을 이 지옥과도 같은 광란의 수렁에서 구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합니다. -홍세화 사회운동가-

2년 전 한바탕 입시전쟁을 치러 봤던 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대학과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당연한 거를 왜 알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는지 화가 납니다. -심태선 학부모-

가슴 뭉클한 13인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시민의 목소리 영상 보기: <https://youtu.be/nSEpGGLk1aw>



■ 출범취지 발표와 '시민 응원단' 모집 안내, 선언문 낭독

출범취지 발표에서 김태훈 실무담당자는, 지난 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개최한 '대학서열해소 열린포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혁신 시민행동>이 태동한 과정, 대학서열해소 방안의 개요, 그리고 입시 경쟁 해소,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의 획기적 감소, 대학교육 발전과 지방대 차별 해소와 같은 활동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출범식을 통해 시작하는 <대학혁신 시민행동>의 첫 번째 캠페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시민 응원단'을 모집하는 캠페인으로서, 참여링크를 이용하여 시민 응원단에 참여 신청을 하고, 링크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증샷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캠페인입니다.



<출범 취지 설명 및 '시민 응원단' 모집 안내>

출범식의 마지막 순서로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대학혁신 시민행동 출범식 선언문>

1. 우리는 대학 서열로 인한 경쟁에 매몰되어 우리의 인간성과 정체성이 훼손당하는 모든 교육체제 속 억압을 거부한다.
2. 우리는 차별적으로 선발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등 교육의 기회 제한이 오늘로 종료되었음을 널리 퍼뜨려 알리고자 한다.
3. 우리는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4.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 전제임을 선포한다.
5. 국민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대학에 입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필수적 조치임을 선포한다
6. 우리는 국가로부터 고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자원의 균등한 배분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7. 우리는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요구함과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8. 오늘 우리는 대학서열로 평가받지 않는 세상, 온전한 자신으로 인정받는 세상, 소질과 적성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세상, 열등감과 우월감이 존중과 신뢰로 바뀌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한다.

2021년 6월 2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혁신 시민행동

선언문을 읽고 울림이 느껴지는 분들, 우리교육의 모순을 끊어내고 싶은 분들을 대학혁신 '시

민 응원단!'으로 초대합니다. 시민 응원단에 참여해 주세요.

※ 시민 응원단 참여 링크: <https://bit.ly/3zRKV9S>

<대학혁신 시민행동>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민 응원단' 모집을 해나갈 것이며, **매월 1회를 통한 응원단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와 전 국민 서명 운동, 입법청원 운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학혁신 시민행동>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학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 6.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

※출범식 전체 동영상 보기: <https://bit.ly/35WeoSn>